전통예술의 진수 한자리에… '굿GOOD보러가자 광양' 개최

무형유산 명인들이 광양에서 펼치는 전통예술의 향연

명인공연·줄타기부터 창작국악·농악까지 다채로운 구성

광양시는 오는 5월 2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100분간 포스코광양백운아트홀에서 전통예술공연 '굿GOOD보러가자 광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진흥원의 대표 브랜드 공연인 '굿GOOD보러가자'는 2004년부터 시작된 옴니버스 형식의 전통예술 지역 순회공연이다.

공연 개최지는 매년 전국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선정되며, 지금까지 전국에서 총 121회 개최된 바 있다.

광양은 지난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개최지로 다시 선정됐다. 이번 공연은 국악인 오정해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지역 무형유산 전승자, 청년 예술인 등이 참여해 세대를 아우르는 수준 높은 무대를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의 시작은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오북춤(한순서류 오북)'으로 문을 열고, 김일구(아쟁,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원장현(대금,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이수자), 지성자(가야금, 전라북도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보유자), 이재화(거문고, 국가무형유산 거문고산조 보유자), 한세현(피리, 국가무형유산 피리정악·대취타 이수자), 이태백(장단,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진도 씻김굿 이수자) 등 전통예술 명인들이 출연한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강민수·채규룡(국가무형유산 진도 다시래기 전승교육사 및 이수자)이 선보이는 단막극 '놀부막'이 관객과 함께하는 무대로 현장감을 더할 예정이며, 국수호(승무 이수자) 명인의 금무, 국악밴드 상자루의 퓨전 창작국악, 권원태(남사당놀이 이수자) 명인의 줄타기, 청배연희단의 삼도농악, 국가유산진흥원 예술단의 소고춤 등이 공연을 풍성하게 채운다.

공연 입장권은 1인당 2매까지 신청 가능하며 전석 무료다. 신청은 백운아트홀 홈페이지(포스코-문화행사-광양-굿보러가자)를 통해 5월 5일부터 25일까지 사전 접수한 뒤, 5월 26일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타 공연 관련 문의는 광양시청 문화예술과(061-797-2732)로 하면 된다.

한편, 본 공연에 앞서 광양노인복지관에서는 소규모 사전 공연이 열리며, 이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전통국악의 매력을 보다 가깝게 접하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명덕 광양시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명인들의 무대를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직접 체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 무형유산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신선호 기자

고흥분청문화박물관, '뮤지엄 즐기다' 공모사업 선정

5월 한 달간 창의체험 프로그램 〈분청사기 크리에이터〉 운영

고흥군(군수 공영민) 분청문화박물관이 (사)한국박물관·미술관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사업 '뮤지엄×즐기다' 공모에 선정돼, 5월 한 달 동안 창의체험 프로그램 〈분청사기 크리에이터 - 이어온 시간, 이어지는 손길〉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분청사기의 미학과 공동체적 의미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체험은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분청사기 인사이트 투어 ▲손끝에 담은 우리 이야기 - 분청사기 아트 페인팅 ▲분청사기 창작스토리랩의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분청사기 인사이트 투어'는 매주 주말 오후 2시부터 30분간 박물관 전시실에서 진행된다. 강사와 함께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분청사기의 역사, 제작 기법, 공동체 속에서의 쓰임새를 배우는 교육형 전시 프로그램이다. 특히 '분청사기 창작스토리랩'과 연계해서 참여하면 이해도와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손끝에 담은 우리 이야기 - 분청사기 아트 페인팅'은 15인 이상 단체 예약제로 운영되며, 체험학습실과 한옥다목적체험관 등에서 진행된다. 덤벙 또는 귀얄 기법으로 만든 초벌 타일에 '가족'과 '집'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분청사기의 전통 기법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담는 시간이다.

'분청사기 창작스토리랩'은 이야기 카드와 퍼즐로 구성된 창의 체험 프로그램이다. 이야기 카드는 분청사기의 역사와 제작 기법, 공동체의 협업 정신을 쉽고 흥미롭게 소개하며, 다양한 질문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창의적 사고를 유도한다.

또한, 아트 퍼즐은 '분청사기 조화초문병'을 모티브로 구성되어 있으며, 퍼즐 조각마다 '우리 공동체'를 상징하는 색과 문양을 자유롭게 색칠하고 조립하는 체험이다. 퍼즐 뒷면의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관련 유물 사진과 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 몰입감과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전통의 아름다움과 창의적 감각이 어우러진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http://buncheong.goheung.go.kr) 또는 전화(061-830-5556)로 가능하다.

분청사기를 매개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며, 문화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유산을 넘어 창의적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흥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 중심의 박물관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5·18의 진실', 외국인 눈으로 기록하다

5·18기록관, 전일빌딩245서 특별전 '증인: 국경을 넘어' 개막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외국인의 시선으로 5·18의 진실을 조명하는 특별전 '증인: 국경을 넘어(Witness: Beyond Borders)'를 2일 전일빌딩245 9층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했다. 이 전시는 2026년 3월31일까지 이어진다. 전시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 머물렀던 외국인 데이비드 돌린저, 고(故) 아놀드 피터슨, 제니퍼 헌틀리 등 3명의 회고록을 통해 광주의 아픔과 민주화의 여정을 재조명한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철수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남아 시민을 보호하고 진실을 목격했으며, 이후 자신들의 경험을 세계에 알리는 데 힘썼다. 전시는 ▲푸른 눈의 이웃 ▲10일간의 일지 ▲오월 이후 등 3개 구역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구역은 세 외국인의 삶과 활동을 소개하고, 두 번째 구역에서는 10일 간의 광주항쟁 기간에 그들이 마주한 장면들을 텍스트와 사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으로 재현한다. 세 번째 구역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이들이 국내외에서 펼친 활동과 자료들을 전시한다.

미국 평화봉사단원 출신 데이비드 돌린저(한국명 임대운)는 헬기 사격을 목격하고, 도청에서 무전 감청과 외신 기자회견 통역 등을 수행했다.

고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광주에 남아 계엄군의 무력진압 장면을 기록했으며, 회고록 '5·18광주사태'를 통해 헬기 사격과 미군 폭격계획 내용을 담아 1995년 서울지검의 참고인 조사로 이어졌다. 5·18 당시 10살이었던 헌틀리 목사의 딸 제니퍼는 집 다락방에 시민을 숨겨준 경험을 바탕으로 '제니의 다락방'을 출간했다.

김호균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은 "이번 전시는 외국인들이 목격한 광주의 진실을 통해 5·18의 보편적 가치를 새롭게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장미꽃 따라 곡성어린이도서관으로 놀러오세요

곡성세계장미축제기념 '꽃 보다 도서관' 특별행사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인 5월 16일부터 26일까지 "꽃 보다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곡성어린이도서관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채로운 동요 공연과 독서문화체험이 마련돼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월 18일(일)에는 곡성에서 활동하는 김성범 동화작가의 그림책「도깨비가 그림책 읽는 법」강연과 동요를 스위스 악기로 연주한 〈동요랑 요들이랑〉이 관객 참여형 북콘서트로 진행된다. 24일(토)에는 꽃을 주제로 한 동요와 케이팝 재즈 〈Blooming Jazz, 꽃 피는 곡성〉을 선보일 예정이다.

더불어 17일과 24일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원데이클래스 〈귀염뽀짝 캐릭터 도시락〉, 프리저브드플라워를 활용한 만들기 〈어린왕자가 사랑한 장미꽃〉이 진행된다.

또한, 18일과 25일에는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높여줄 '폴짝폴짝 실감형 동화체험'(3D 5면)도 특별 운영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5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와 전화(☎061-363-98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장미축제도 즐기고 도서관에서도 소중한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곡성/이정수 기자